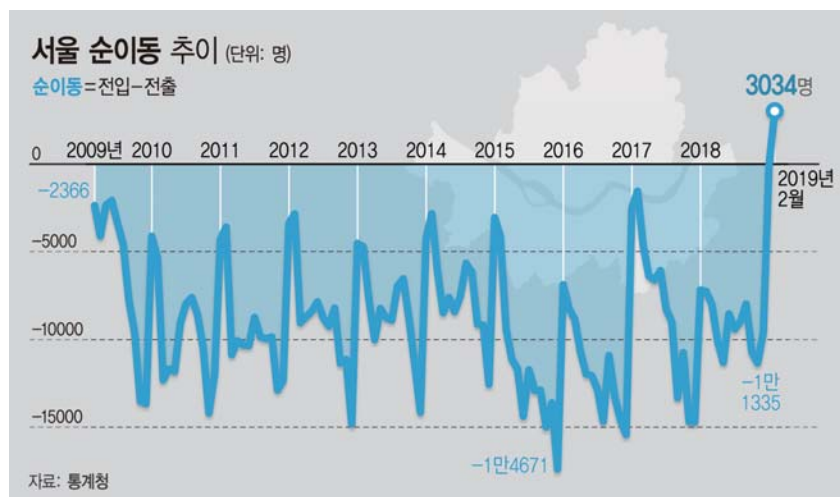


# 지난달 서울 인구 10년만에 '순유입'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송파구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지난 2월 서울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이탈한 인구를 10년 만에 처음 넘어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을 보면 지난 2월 서울로 3034명의 인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9년 2월 이후 10년 만에 전입된 인구(14만1641명)가 전출된 인구(14만1336명)보다 많았다.

서울 인구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9년 10개월 연속 인구가 순유출됐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서울 내에서도 송파구로의 순유입 규모가 특히 컸다"며 "헬리오시티로 9500세대가량이 지속해서 입주 중인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원에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지은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다.

지난해 12월28일 준공을 마치면서 같은달 31일부터 입주가 개시됐다. 최저 10층에서 최고 35층인 8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총 3만명 규모 9510세대가 입주 대란에 가세했다.

이에 올해 들어 1월부터 서울에서의 순유출 인구가 94명으로 크게

통계청, 27일 '2019년 2월 국내 인구이동' 발표  
서울로 3034명 순유입...2009년 2월 이후 처음  
"송파 헬리오시티 9500세대 입주 지속된 영향"  
경기·세종으로 유입...전남·대구선 빠져나가

축소됐고 2월에는 유입세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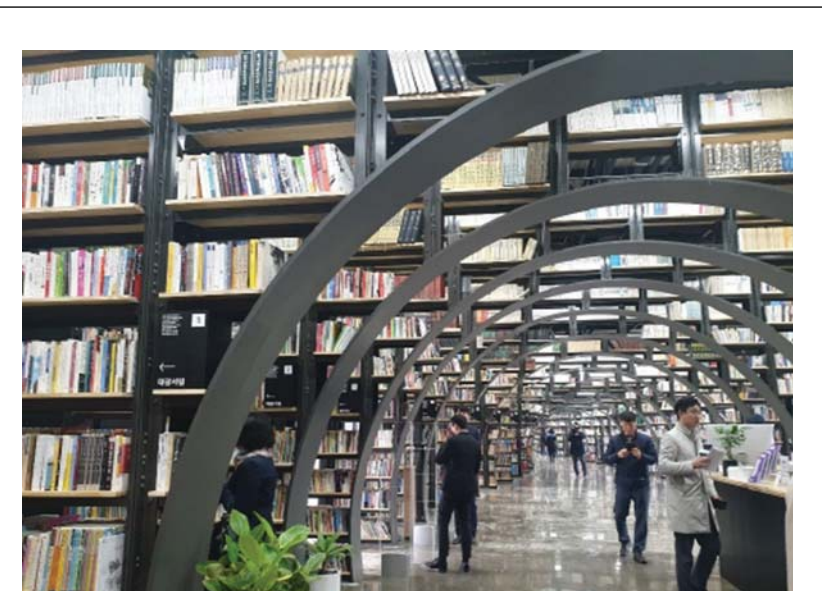
같은 기간 경기도도 1만4200명의 인구가 순유입됐다. 경기로의 순유입세는 1989년 3월(6785명)부터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외에 세종(3293명), 제주(136명) 등에서도 유출된 인구보다 유입된 인구가 많았다.

이밖에 13개 시·도에서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3455명)에 이어 2월에도 2559명의 인구가 유출됐는데, 2014년 9월(-6094명) 이후 최대 폭이다. 이밖에 경남(-2204명), 경북(-2026명), 전북(-1858명), 부산(-1677명), 대전(-1284명), 울산(-1245명), 강원(-1001명), 충남(-483명), 충북(-117명) 등에서 인구가 빠져나갔다.

지난 2월 총 국내 이동자 수는 70만2000명으로 1년 전(69만8000명)보다 5000명(0.7%) 늘었다. 지난해 6.8% 감소하며 60만명대로 내려앉았다가 1년 만에 70만명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가 62.8%, 시·도 간 이동자가 37.2%를 각각 차지했다.

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7.8%로 1년 전(17.7%)보다 0.1%p 올랐다. 김과장은 "월은 통상 화기가 시작되고 이자도 많은 달"이라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인구이동 통계는 매일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다.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등으로 실제 이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대형창고가 한책 보물창고로" '서울책보고' 개관

잠실나루역 인근에 비어있던 대형 창고가 한책 보물창고로 변신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책 추천역이 담긴 옛 동화책이나 유명 문학작품의 초판본,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책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는 27일 비어있던 신천 유수지 내 옛 임웨이 창고(송파구 오금로 1)를 리모델링해 전국 최초로 공공 한책방 '서울책보고'로 재생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책보고는 규모 1465㎡의 초대형 한책방이다. 기존 도서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독립출판

의 질 시민의 양식을 위한 공간으로 태어난거 보면서 기쁘고 행복하다"며 서울책보고와 같은 '거점 도서관 5개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그간 도서관 내에 작은도서관 조성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작은 도서관들은 한계가 좀 있었다"며 "거점 도서관을 골 5개 거점별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그 중에 한 곳에는 꼭 독립출판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지역인 육구를 표출하고 싶은 개인출판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공간 만들

국내 최초 공공 한책방...13만2천여권 소장  
도시재생+한책방 활성화...1465㎡대형공간

물과 명사의 기증도서 컬렉션까지 총 13만여 권의 책을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다.

서울책보고 내부는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 한책 판매 및 열람 공간(12만여 권)이 있다. '책벌레'를 형상화한 구불구불한 철제형 서가 2개가 터널처럼 긴 통로를 따라 양 옆으로 연결됐다.

오른쪽으로는 ▲독립출판물 열람공간(2130여 권) ▲명사의 기증도서 전시공간(1만600여 권) ▲공연, 토크, 마켓 등이 열리는 아카데미 공간과 북카페가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아카데미 공간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참여 한책방 대표 및 독립서점 명예교수, 삼영회 한양대 석좌교수 부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개관식에 참석해 "(서울책보고가) 우리 시민의 삶

## 기억·기록 저장소 '서울기록원' 문연다

5월 정식 개원

서울의 기억과 기록 저장소인 '서울기록원'이 28일 문을 연다. 3월 임시 개원한 뒤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기간을 갖고 5월15일 정식 개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옛 질병관리본부) 내에 건립 착수한 서울기록원을 28일부터 임시 개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들은 28일 오전부터 방문해 기록전시실과 기록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임시 개원 기간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운영상의 보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임시개원을 통해 공개되는 기록전시실은 300평 규모(96㎡)다. 서울기록원 2층에 조성됐다. 개원 기념전의 주제는 공공기록부터 시민기록을 아우르는 '기억의 힘'이다. 기록의 발견, 발원

## 서울택시 미터기, 기계식→GPS기반 앱

서울시가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기존의 기계식미터기를 대체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반의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실제 택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정식 신청했다.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는 GPS 수신 불안정 지역은 OBDX(운행기록 자기 진단 장치)로 바뀌기전수에 따른 거리를 산정해 오차를 0% 가까이 산정한다. 기존 스마트폰 GPS기반 앱미터기가 터널, 지하 주차장, 빌딩사이 등 GPS 수신 불안정 지역에서 데이터 왜곡으로 거리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기존 카드결제 단말기와 통합해 서비스 된다. 기존 승차앱에서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결제기와 통합



해 추진되고 있다.

택시기사는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진다. 택시 방법, 빈차 표시등도 같이 자동연동돼 사고 위험성과 인위적 승차거부도 낮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 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 조정을 통해 동시에 일괄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